

학령기 아동의 죽음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전 영 란

성남시호스피스센터

A Inquiry of the Perception of Death in School Age

Joun, Young-Ran, R.N., AHNS

Hospice Center, Sung-Nam City

ABSTRACT

Purpose: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subjective structures and types of school age children's perception of death through an investigative study on their perception of death in order to provide a basic material for them to understand death, and develop and carry out an effective death education program. **Methods:** The study method used the Q Methodology which can investigate the subjective structures and types of school age children's perception of death. For Q-population, 20 school age children were used as subjects for neutral interviews and open surveys, and through documentary research, a total of 132 statements were collected, For Q-samples, 23 statements (Q-samples) were derived through a non-structural method. P-samples were 31 school age children (8~13 year olds), Q-sorting was carried out using Q-cards, an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the PC QUANL program. **Results:** As a result of the study, children's perception of death was divided into five types. The first type was functional type, characterized by prominent subjective perception regarding the elements of death, such as non-reversibility, universality, non-functionality, and causality. The second was after-life type, characterized by a strong, focus on life after death in one's perception of death, and it included children with Christian background and those who had experienced death in their immediate family. The third was religious type, characterized by a strong belief in being able to still watch over one's family and friends after one's death, resulting in a positive faith in the after-life. The fourth was fearful type, characterized by a deeper fear of death in comparison to other types. The fifth was realistic type,

characterized by a strong and positive assent to the perception of good death. **Conclusion:** The significance of the results of this paper's study to Nursing is as follows. In terms of understanding the subjectivity of school age children's perception of death in nursing practice, and understanding the compositional elements of death presented with strong emphasis in existing literature and studies, the results will expand these understandings and allow us to understand the level of perception in school age children regarding the definition of death, after-life, and good death, be utilized as useful material in developing an effective death education program for them according to their type characteristics, and become the fertilizer for enabling the children to live a proper life and preventing the tendency to make light of death that occur in adolescence and the spread of suicides. In terms of nursing theory, the description and examination of the subjective structur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fferent, types of school age children's perception of death can be utilized as useful material for building a model of school age children's perception of death, and be further used for teaching respect for life. In terms of nursing research, the results can contribute to research describing the effects of nursing intervention strategies and developing tools for providing psychosocial nursing in terms of giving school age children a positive perception of death according to their types as well respect for life.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죽음은 생로병사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어린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삶과 죽음은 숙명적인 관계로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일이다.(남은영, 장연집, 1998)

특히 오늘날 기계문명의 발달로 다양한 삶을 살면서 사고로 많이 죽게 되고 돌연사 등 예견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동들은 가족, 이웃, TV, 이야기책 등을 통해 죽음을 경험하게 되지만 직계가족의 죽음 이외는 죽음을 크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남은영, 장연집, 1998)

접수일 : 2008년 2월 18일, 승인일 : 2008년 3월 24일
교신저자 : 전영란

Tel : 016-9525-4526

E-mail : jran0918@naver.com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임상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임.

아동들의 죽음이란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인지적 능력의 발달이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간접적 경험을 통해 죽음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갖는 경우가 있다.(정경숙, 1998) 이러한 경우 아동들은 올바른 죽음 교육이 없었고 죽음자체를 자신의 것이 아닌 별개의 것으로 여기고 부정하려는 대다수 성인들의 왜곡된 의식에 잘못이 있는 듯하며(Bemstein, 1973) 대화로 풀지 않아 아동들의 죽음에 대한 개념을 잘못 형성시키고 죽음에 대한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도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아동들이 부모나 심리적으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된다면 불안과 혼란에 빠져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듯 아동기에 잘못 형성된 죽음인식은 성인기까지 그대로 지속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권성자 1984, 김남주 1983)

그러므로 죽음이란 사실에 대해 환상이나 비현실적 인생관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며 죽음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은 아동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아동학 분야에서 아동의 죽음에 대한 연구는 그 민감성 때문에 사회, 정서, 인지 발달 등에 대한 연구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아동들을 죽음이라는 사실로부터 보호하려는 경향이 올바른 죽음개념 형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오승혜, 2001)

따라서 국내외에서 죽음에 대한 연구들은 많지만 아동의 죽음개념인식과 죽음불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들은 죽음의 자연스러움에 대해 인지적 수준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자기중심적 생각에서 탈피하도록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외국에선 올바른 죽음개념 형성과 죽음불안 감소를 위해 아동기부터 죽음에 대한 올바른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죽음에 대한 연구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죽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죽음준비 교육이 아동으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감소시켜 주는데 좋은 효과적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도 미흡하고 활발히 연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80년대 이후 아동의 연령이나 인지발달에 따른 작은 개념에 관한 연구가 조금씩 행해져 올 뿐이다. (권성자 1984, 김남주 1984, 김상희 1986, 김양남 1992, 이정희 1988)

piaget에 의하면 아동들은 7~11세 사이인 구체적 조작기가 되면 인지적 사고의 발달로 인해 죽음이라는 현상을 원상회복 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보편적 사실로 받아드려져 죽음불안이 나타나는 시기라고 지적했다. 만 9세가 되면 구체적 조작기라도 죽음이 막연하게 타인에게만 일이 일어나리라는 이전의 생각과는 달리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보고 죽음불안이 나타나게 된다고 했다. (Smith, 1995)

따라서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감소시켜 주고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선 죽음준비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청소년 자살 증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죽음을 두려워함과 아울러 삶의 경시 풍조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들에게 삶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인식시키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키우도록 도와주며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죽음에 대한 개념형성이 안 되어 있는 아동에겐 죽음교육은 혼란과 두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유아기 죽음에 대한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둔 Furman(1974)은 추상적이거나 죽음의 개념에 대해 알고 있는 아동일수록 죽음에 대해 잘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죽음에 관해 몇 마디라도 들어본 아동들이 보다 쉽게 죽음을 인정하고 슬픔에서 빨리 벗어나 실제 생활에 적응된다고 보았다. (Sontrock, 1995)

또한 아동들이 죽음에 관하여 얼마나 정확한 지식을 갖느냐 왜곡된 지식을 갖느냐에 따라 현실적응도 차이가 난다고 보았다. 죽음준비교육은 실제 삶의 경험에서 부딪치는 죽음 문제보다 죽음준비교육을 통하여 죽음에 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정서적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정경숙 1985)

그리고 Schmitz(1987)는 아동의 죽음준비교육은 생명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과 최선을 다해 삶을 즐기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슬픔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고난을 극복하고 전진하도록 자극을 주는 것이라고 했듯이 올바른 죽음준비교육에서 자살방지와 생명존중 사상은 아동들에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안내역할을 하므로 좋은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의의와 목적을 두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죽음인식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하여 Q방법론을 적용하여 학령기 아동의 죽음에 대한 주관성을 유형화하고 죽음에 대한 유형별 특성과 차이점을 확인함으로써 죽음인식을 이해하고 성장발달단계에 적합한 죽음교육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학령기 아동의 죽음인식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를 유형화한다.
- 2) 학령기 아동의 죽음인식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유형의 특성을 분석하고 기술한다.

방 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죽음인식에 대한 주관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Q-방법론적 접근을 이용한 탐색적 연구이다.

연구절차 및 방법

본 연구의 절차 및 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절차

제 1 단계 : Q-모집단 (Q-Population) 구성
1. 중립적 면담과 개방형 질문지를 통한 진술문 추출 (초등학교 2~6학년 아동 20명) : 132개 수집
2. 관련문헌과 선행연구를 통한 진술문 추출 : 9개 수집
제 2 단계 : Q-표본 선정, Q-카드 제작, Q-표본 분포도 작성
1. Q-표본의 선정 : 죽음인식에 관한 Q-모집단을 8개 범주로 분류하여 23개 선정
2. Q-카드 제작 : 5cm × 7cm 크기, 23개 문항의 진술문을 각각 인쇄
3. Q-표본의 분포도 작성 : 23개의 Q-표본을 분류하는데 적합한 Q-표본 분포도 작성
제 3 단계 : P-표본(P-population) 선정
1. 아동 당사자의 동의 : 동의서 내용에 서명하게 함
2. 총 31명 선정
제 4 단계 : Q-분류(Q-sorting)
1. Q-분류 : 제작된 카드로 대상자가 강제분포된 양식에 맞게 분류
2. 추후면담 실시 : 양극간의 분류된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기재
3. 관련요인 탐색을 위한 질문을 통한 자료수집
제 5 단계 : 자료처리 및 분석
1. PC QUANL program에 적합하게 Data file을 작성하여 분석
2. 관련 자료의 성향 분석
제 6 단계 : 결과기술 및 논의
1. 학령기 아동의 죽음인식에 대한 주관적 구조와 유형별 특성 설명
2. 학령기 아동의 5가지 죽음인식 유형에 각각 대한 논의

제 1 단계에서는 Q-모집단(Q-population)을 구성하였다. 제 2 단계에서는 Q-표본(Q-sample)을 선정하여 Q-카드를 제작하고 Q-표본의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제 3 단계에서는 P-표본(P-sample)을 선정하였다. 제 4 단계에서는 Q-분류(Q-sorting)와 추후면담과 추

가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제 5 단계에서는 자료처리 및 분석을 하였다.

제 6 단계에서는 결과를 기술하고 설명하였다.

Q - 표본(Q - sample)의 표집방법

Q 표본의 표집방법은 구조화된 것과 비구조화된 것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의 유형을 찾아내고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 구조화된 표본의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Q - 모집단 (Q - population)의 구성

Q - 모집단은 학령기 아동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죽음인식에 관련된 진술문으로 구성하였으며, Q - 모집단 추출은 중립적 면담과 개방형 질문지를 활용하는 방법과 선행연구를 참고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① 중립적 면담과 개방형 질문지를 통한 Q - 모집단 추출

본 연구는 2007년 4월 10일부터 4월 27일까지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2~ 6학년생 아동들에게 중립적 면담과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추출하였다. 질문 내용은 『 1) 죽음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가? 2) 죽음을 주변에서 경험한 적이 있는가? 애완동물, 친척 등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3) 사람은 죽은 뒤에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는가? 4) 좋은 죽음은 어떤 죽음을 이야기 하는가? 또한 안 좋은 죽음은 어떤 죽음을 이야기 하는가? 5) 내가 죽게 된다는 걸 알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6) 나의 좋은 죽음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었다.

아동은 언어능력이나 추상적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특히 학령기 아동은 인지발달상 구체적 조각기로 이들의 사고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국한될 뿐 가설을 설정하여 문제해결에 접근해 나가거나 추상적인 사고능력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성인과 달리 어떤 개념에 대한 자신의 느낌이나 행동배경, 동기를 설명하는데 제한이 있다.(김병선, 이윤옥 1997; 정연, 조결자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아동들의 진술로 이루어진 Q - 모집단도 관찰해보면 죽음에 대한 신학적, 철학적인

측면에 대한 추상적 사고를 반영하는 진술문들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사후세계와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와 천주교의 영향을 받은 진술문들이 대부분이었다.

② 문헌과 선행연구를 통한 Q - 모집단 추출

학령기 아동들의 죽음인식에 대한 주관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아동의 죽음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문헌 및 선행연구를 통하여 9개의 진술문을 추출하였는데, 이는 죽음의 요소인 보편성, 비가능성, 비가역성, 인과관계(원인)와 관련된 진술문들로 구성되었다.

Q - 표본(Q - sample) 선정

132개의 진술문으로 구성된 죽음에 관한 Q - 모집단은 Q - 방법론 전문가 2인과 연구자의 검토로 결정하여, 8개 범주(죽음의 정의, 죽음의 보편성, 죽음의 원인, 죽음의 비가역성, 죽음의 비가능성, 좋은 죽음, 사후세계, 죽음경험)를 기준으로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면서 분류하여 진술문 23개를 선정하여 학령기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진술문으로 만들었다<표 2 참조>.

Q표본을 23개로 선정한 이유는 Q모집단을 이루는 진술문들이 많이 중복되었을 뿐 아니라 학령기 아동은 주의집중 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Q표본 분류과정을 짧게 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Q카드 제작 및 Q표본 분포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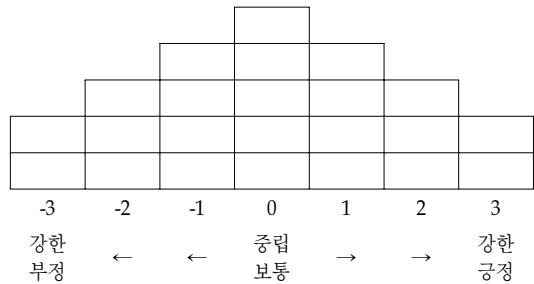
Q-표본의 표집이 끝난 후 Q-카드를 제작하고 표본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Q-표본으로 표집된 학령기 아동의 죽음인식에 관한 진술문 23개를 5cm x 7cm 카드에 인쇄하여 제작하였다.

<표 2> 학령기 아동의 죽음인식에 관한 Q 진술문 23개

1.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하늘 나라로 가는 것이다.
2. 죽는다는 것은 하나(느)님이 불러준 생명시계가 끝나는 것이다.
3. 죽는다는 것은 엄마 아빠와 가족과 친구들을 볼 수 없게 되므로 무섭고 끔찍하다.
4. 죽은 사람도 보고 들을 수 있다.
5.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도 생각할 수도 없다.
6. 죽은 뒤 오랫동안 무덤에 묻혀있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 수 있다.
7. 죽었다가도 무덤에 묻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8.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
9. 사람은 늙으면 죽는다.
10. 사고로 죽거나 갑작스럽게 죽기도 한다.
11.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면 죽게 된다.
12. 죽은 뒤에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
13. 죽은 뒤에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또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된다.
14. 사람은 죽은 뒤에 하늘로 가서 별이 되어 이 세상에 남아 있는 사람을 지켜보게 된다.
15. 죽은 뒤에 멋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16. 좋은 죽음은 나이가 다 외어서 남에게 많이 배풀고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17. 좋은 죽음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자신이 한을 남기지 않고 만족하며 죽는 것이다.
18. 좋은 죽음은 아프지 않고 누구에게 살해당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19. 누구에게나 살해되거나 병을 앓다가 죽는 것은 좋지 않게 죽는 것이다.
20. 죄를 많이 지어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하고 생을 마치는 것은 좋은 죽음이 아니다.
21.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남을 못살게 한 후 죽는 것은 좋은 죽음이 아니다.
22. 억울하게 죽는 것은 좋은 죽음이 아니다.
23. 애완동물이 죽거나 가족이나 친척이 돌아가셨을 때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아팠다.

표본의 분포도는 죽음인식에 관한 23개의 진술문이 적힌 Q-카드를 자신의 주관성에 따라 0 을 중심으로 정규분포로 강제분포 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그림 1>.



<그림 1> Q-분포도

P - 표본(P - sample)의 표집 방법

본 연구의 P - 표본은 2007년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성남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2학년 ~ 6학년 학령기 아동으로 구체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한 아동 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대상자 보호와 연구의 윤리성 확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의 표지에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동의하는지를 묻는 질문을 명시하고 동의할 경우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으로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였다.

Q- 표본 분류과정(Q - sorting) 및 방법

Q - 표본을 먼저 읽어본 후 긍정(+) 중립(0) 부정(-)으로 크게 3그룹으로 나눈 다음 긍정 진술문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차례로 골라 바깥(+3)에서부터 안쪽으로 분류를 진행하여 중립부분에서 마무리하면 된다. 같은 방법으로 부정 진술문들 중에서 가장 부정하는 것을 바깥(-3)에 두고 차츰 안쪽으로 분류를 계속하여 중립 부분에서 끝나도록 하였다.

가능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진술문에 대하여 이해가 가지 않는 아동의 경우 문장에 대한 보충 설명을 제공하였으며, Q-표본 분류과정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아동들에게도 자세한 설명을 추가로 제공하였다.

또한, 양극에 놓여진 2개씩의 진술문(+3, -3) 4개 문항에 대해서는 Q유형의 해석 시 유용한 정보를 사용하기 위하여 선택 이유를 질문지에 직접 쓰게 하거나 연구자가 응답내용을 대신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 때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25분 정도 걸렸다.

아동에게 Q - 방법론적 접근을 할 때의 고려사항으로 정 연과 조결자(1998)는 Q - 표본 분류시 양극단의 문항을 선택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문헌고찰을 통하여 관련요인으로 알려진 내용을 고려하여 개방적 질문을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아동의 Q-표본 분류과정이 끝난 후 학령기 아동의 죽음인식에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학년, 종교, 부모의 직업 등을 추가로 조사하였으며, 기타 필요한 내용은 아동의 부모와의 진술을 통해 수집하였다.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P - 표본으로 표집된 31명의 자료수집이 완료된 후 수집 자료를 컴퓨터에 자료 화일로 입력시킨 후 코딩은 배열카드 등에 기록된 진술항목 번호를 확인해 가면서 가장 부정하는 진술문을 1점으로 시작하여 중립인 경우 4점, 가장 긍정인 경우는 7점을 부여하여 점수화 하였다.

부호화된 자료는 PC QUANL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Q 요인 분석은 주인자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요인수의 결정을 위해 Eigen value 1.0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의 수를 다양하게 입력시켜 산출된 결과 중 이상적으로 판단된 유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죽음인식의 주관적 구조와 유형

학령기 아동의 죽음인식을 요인수를 다양하게 입력시켜 산출한 결과 이상적이라고 판단된 요인의 수는 5개 요인으로, 이 5개 요인이 전체변량의 53.66%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요인별 설명력은 제 1 요인이 25.00%, 제 2요인이 11.00%, 제 3요인이 8.02%, 제 4 요인이 5.92%, 제 5요인이 3.72%였다<표 3>. 이와 같이 요인의 수를 5개로 분석하였을 때 5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졌으며. 이들 유형 간의 상관관계는 <표 4>와 같다.

<표 3> 죽음인식 유형별 Eigen value와 변량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EIGEN VALUES	7.7495	3.4094	2.4858	1.8345	1.1542
VARIANCE	.2500	.1100	.0802	.0592	.0372
CUMULATIVE	.2500	.3600	.4402	.4993	.5366

<표 4> 죽음인식 유형 간의 상관관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유형 1	1.000				
유형 2	.372	1.000			
유형 3	.317	.403	1.000		
유형 4	.352	-.020	.263	1.000	
유형 5	.495	.184	.421	.184	1.000

연구대상자의 유형별 특성은 <표 5>와 같으며, 제 1유형에 속한 사람은 10명, 제 2유형은 4명, 제 3유형은 7명, 제 4유형은 7명, 제 5유형은 3명으로 구성되었고, 각 유형에서 인자가중치가 높은 아동일수록 그 속한 유형의 전형적인 아동으로 그 유형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인자 가중치가 1.0 이상인 사람이 제 1유형 5명, 제 2유형 3명, 제 3유형 2명, 제 4유형 2명, 제 5유형 1명이 속해 있었다.

<표 5> 죽음인식 유형별 특성과 인자가중치

유형	번호	성별	학년	종교	인자가중치
1 (10명)	16	여	3학년	없음	2.0228
	18	여	6학년	천주교	1.4475
	14	남	4학년	천주교	1.3185
	15	남	4학년	기독교	1.0677
	03	여	3학년	없음	1.0605
	31	남	6학년	기독교	.9991
	29	남	3학년	없음	.9729
	17	여	3학년	기독교	.9153
	06	여	2학년	불교	.6964
	05	여	2학년	없음	.5409
.....					
2 (4명)	19	여	3학년	기독교	1.6504
	01	여	3학년	기독교	1.6209
	07	남	5학년	불교	1.4392
	20	남	5학년	없음	.4766
.....					
3 (7명)	12	남	3학년	기독교	1.3063
	02	남	4학년	기독교	1.1829
	04	남	3학년	기독교	.7553
	08	남	6학년	없음	.6659
	10	남	6학년	없음	.6143
	25	여	4학년	기독교	.4480
21	남	5학년	기독교	.4404	
.....					
4 (7명)	09	여	6학년	불교	1.0257
	26	남	3학년	없음	1.0117
	13	남	6학년	없음	.9871
	23	여	3학년	천주교	.7640
	27	남	3학년	기독교	.7553
	11	남	6학년	기독교	.7077
24	남	3학년	불교	.6689	
.....					
5 (3명)	30	남	5학년	기독교	1.0939
	28	남	2학년	기독교	.8768
	22	남	5학년	기독교	.2144

학령기 아동에 대한 각 결과의 해석은 각 유형에 대한 23개의 진술문중 긍정을 보이는 항목(표준점수>+1)과 부정을 보이는 항목(표준점수>-1)을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각 유형별 특성을 보다 분명히 밝혀내기 위해 개별 진술 항목에 대한 특정유형의 표준점수와 함께 개별 진술 항목에 대한 다른 유형과의 점수 차이 중 두드러진 항목들을 중심으로 해석하였다(부록 1~15). 일적으로 인자가중치가 1.00이상인 사람이 대표성을 가지며 그 유형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데(Stephenson, 1982), 본 연구도 각 유형의 대표성을 가진 아동을 중심으로 Q-분류과정 당시관찰 및 긍정과 부정의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면담하고 이를 토대로 주관적 구조유형을 설명하고 해석하였다.

제 1 유형 : 기능적형

제 1유형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항목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애완동물이 죽거나 가족이나 친척이 돌아가셨을 때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아팠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 ‘좋은 죽음은 나이가 다 되어서 남에게 많이 베풀고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라는 진술문에 강한 긍정적 동의를 보였으며, ‘죽은 사람도 보고 들을 수 있다’ ‘죽은 뒤 오랫동안 무덤에 묻혀 있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죽은 뒤에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또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다’ ‘죽었다가도 무덤에 묻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진술문들에는 강한 부정적 동의를 보였다.

그러나, 타 유형들의 표준점수의 평균과의 차이 값이 ±1.0 이상인 진술문들 중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도 생각할 수도 없다’ 는 진술문이 타유형에 비하여 두드러진 차이로 긍정적인 동의를 나타내었으며, ‘죽었다가도 무덤에 묻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와 ‘죽은 뒤에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또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다’라는 진술문이 타유형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부정적인 동의를 나타내었다. 이는 죽음의 비역행성에 대하여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죽음의 비가역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6> 죽음인식 제 1유형의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항목 번호	진술항목	표준점수 (Z-score)
23.	애완동물이 죽거나 가족이나 친척이 돌아가셨을 때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아팠다.	1.30
8.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	1.26
16.	좋은 죽음은 나이가 다 되어서 남에게 많이 베풀고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1.15
5.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도 생각할 수도 없다. *	.61
7.	죽었다가도 무덤에 묻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	-1.43
13.	죽은 뒤에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또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다. *	-1.60
6.	죽은 뒤 오랫동안 무덤에 묻혀 있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1.81
4.	죽은 사람도 보고 들을 수 있다.	-2.29

* 타 유형에서 표준점수의 평균과의 차이값 > ±1.0

이 유형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제 1유형의 대표성을 지닌 아동을 중심으로 Q-분류 과정시의 양극단에 선택한 진술문의 선택이유와 아동이 지닌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해 본 결과 애완동물의 죽음을 대부분 경험하였으며, 2,3,4 학년이 대부분이며 죽음의 구성요소인 보편성, 비역행성 비가역을 중심으로 한 인식이 강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제 1유형에 속하는 아동들은 Piaget의 죽음의 단계중 기능적 단계와 같았으므로 제1유형을 기능적형이라 명명 하였다.

제 2 유형 : 사후세계형

제 2 유형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항목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여준 생명시계가 끝나는 것이다' '사고로 죽거나 갑작스럽게 죽기도 한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다' '사람은 늙으면 죽는다'라는 진술문에 강한 긍정적 동의를 보였으며 '죽은 뒤 오랫동안 무덤에 묻혀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좋은 죽음은 아프지 않고 누구에게 살해당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죽었다가도 무덤에 묻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진술문에는 강한 부정적 동의를 보였다.

<표 7> 죽음인식 제 2유형의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항목 번호	진술항목	표준점수 (Z-score)
23.	애완동물이 죽거나 가족이나 친척이 돌아가셨을 때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아팠다.	1.65
2.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여준 생명시계가 끝나는 것이다. *	1.65
10.	사고로 죽거나 갑작스럽게 죽기도 한다. *	1.37
8.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	1.09
1.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다. *	1.08
9.	사람은 늙으면 죽는다.	1.05
7.	죽었다가도 무덤에 묻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1.37
18.	좋은 죽음은 아프지 않고 누구에게 살해당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1.52
6.	죽은 뒤 오랫동안 무덤에 묻혀있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2.10

* 타 유형의 표준점수의 평균과의 차이값 > ±1.0

그러나, 타 유형들의 표준점수의 평균과의 차이값이 ±1.0 이상인 진술문들 중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여준 생명시계가 끝나는 것이다' '사고로 죽거나 갑작스럽게 죽기도 한다'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다'라는 진술문이 타 유형에 비해 두드러진 차이로 긍정적인 동의를 나타내고 있어 죽음과 관련되어 기독교적인 내세에 대한 인식이 강한 유형임을 알 수 있다.

이 유형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제 2유형의 대표성을 지닌 아동19명과 7명을 중심으로 양극단의 진술문 선택이유와 아동이 지닌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대표성을 갖는 한 아동은 최근 3년 이내에 조부모의 죽음을 경험하였으며 두 아동은 종교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기독교적인 내세에 대한 믿음이 강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제 2유형에 속하는 아동들은, 사후세계에 대하여 강한 내세 중심의 죽음인식이 두드러진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 2유형은 사후 세계형으로 명명하였다.

제 3 유형 : 종교형

제 3 유형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항목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애완동물이 죽거나 가족이나

친적이 돌아가셨을 때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아팠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다', '죽은 뒤에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는 진술문에 강한 긍정적 동의를 보였으며, '죽는다는 것은 엄마 아빠와 가족 친구들을 볼 수 없게 되므로 무섭고 끔찍하다'에 가장 부정적 동의를 보였고 '죽음 사람은 움직이지도 생각할 수도 없다'와 '죽었다가도 무덤에 묻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진술문에는 강한 부정적 동의를 보였다.

또한, 타 유형들의 표준점수의 평균과의 차이 값이 ±1.0 이상인 진술문들 중 '죽은 뒤에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는 진술문이 타 유형에 비해 두드러진 차이로 긍정적인 동의를 나타내고 있으며, '죽는다는 것은 엄마 아빠와 가족 친구들을 볼 수 없게 되므로 무섭고 끔찍하다'라는 진술문이 타 유형에 비해 가장 두드러진 차이로 부정적인 동의를 나타내고 있어, 죽은 뒤 사후세계가 있음을 강하게 신뢰하고 있고 현세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으로 간다는 믿음이 확실하고, 죽은 뒤에도 하늘나라에서 친구나 가족을 지켜볼 수 있으므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별로 없는 유형임을 알 수 있다.

<표 8> 죽음인식 제 3유형의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항목 번호	진술항목	표준점수 (Z-score)
23.	예완동물이 죽거나 가족이나 친적이 돌아가셨을 때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아팠다. *	2.30
8.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 *	1.95
12.	죽은 뒤에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 *	1.27
7.	죽었다가도 무덤에 묻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1.15
5.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도 생각할 수도 없다.	-1.63
3.	죽는다는 것은 엄마 아빠와 가족과 친구들을 볼 수 없게 되므로 무섭고 끔찍하다. *	-2.29

* 타 유형과의 표준점수의 평균과의 차이값 > ±1.0

이 유형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제 3유형의 대표성을 지닌 아동을 중심으로 양극단의

진술문 선택이유와 아동이 지닌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대부분 3, 4학년 남자 아동으로 기독교적인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죽은 뒤에도 하늘나라에서 친구나 가족을 지켜볼 수 있다는 믿음이 확실한 아동들로 구성되어있었다.

제 3유형에 속한 아동들은 사후세계에 대한 기독교적 내세 사상이 더 두드러졌고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종교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이 확실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 3유형은 종교형으로 명명하였다.

제 4유형 : 공포형

제 4 유형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항목을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죽는다는 것은 엄마 아빠와 가족과 친구들을 볼 수 없게 되므로 무섭고 끔찍하다'에 가장 강한 긍정적 동의를 보였으며, 이외에도 '좋은 죽음은 나이가 다 되어서 남에게 많이 베풀고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죽은 뒤에 멋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진술문에 강한 긍정적 동의를 보였다. 반면에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다'에 가장 강한 부정적인 동의를 보였으며, '죽는다는 것은 하나(느)님이 불어준 생명시계가 끝나는 것이다', '죽었다가도 무덤에 묻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사람은 죽은 뒤에 하늘로 가서 별이 되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지켜보게 된다'라는 진술문에 강한 부정적인 동의를 보였다.

이들 진술문 중에서 타 유형들의 표준점수의 평균과의 차이 값이 ±1.0 이상인 진술문들을 살펴보면 표준점수가 가장 높았던 '죽는다는 것은 엄마 아빠와 가족과 친구들을 볼 수 없게 되므로 무섭고 끔찍하다'가 타 유형들의 표준점수의 평균값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긍정적 동의를 보이는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죽은 뒤에 멋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라는 진술문이었다. 또한,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다'가 타 유형들의 표준점수의 평균값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부정적 동의를 보이는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죽는다는 것은 하나(느)님이 불어준 생명시

계가 끝나는 것이다로 나타났다.

<표 9> 죽음인식 제 4유형의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항목 번호	진술항목	표준점수 (Z-score)
3.	죽는다는 것은 엄마 아빠와 가족과 친구들을 볼 수 없게 되므로 무섭고 끔찍하다. *	1.72
16.	좋은 죽음은 나이가 다 되어서 남에게 많이 배풀고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1.33
15.	죽은 뒤에 멋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	1.28
8.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	1.23
14.	사람은 죽은 뒤에 하늘로 가서 별이 되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지켜보게 된다.	-1.14
7.	죽었다가도 무덤에 묻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1.40
2.	죽는다는 것은 하나(느)님이 불러준 생명시계가 끝나는 것이다. *	-1.61
1.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다. *	-1.99

* 타 유형과의 표준점수의 평균과의 차이값 > ±1.0

이 유형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제 4유형의 대표성을 지닌 아동을 중심으로 양극단의 진술문 선택이유와 아동이 지닌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대부분 고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없거나 불교였으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강하였으며, 사후세계에 대하여도 기독교적 내세사상 중심이라기보다는 불교적인 환생이나 윤회사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불교적인 사후세계에 대한 생각은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는 미약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제 4유형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타 유형에 비하여 강한 특성을 나타내었으므로 공포형으로 명명하였다.

제 5유형 : 현실형

제 5 유형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항목을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좋은 죽음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자신이 한을 남기지 않고 만족하며 죽는 것이다', 에 가장 강한 긍정적 동의를 보였으며, 이외에도 '좋은 죽음은 나이가 다 되어서 남에게 많이 배풀고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좋은 죽음은 아프

지 않고 누구에게 살해당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애완동물이 죽거나 가족이나 친척이 돌아가셨을 때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아팠다'라는 진술문에 강한 긍정적 동의를 보였다. 반면에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도 생각할 수도 없다',에 가장 강한 부정적 동의를 보였으며, 이외에도 '죽은 뒤 오랫동안 무덤에 묻혀있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죽은 사람도 보고 들을 수 있다'라는 진술문에 강한 부정적 동의를 보였다.

이들 진술문 중에서 타 유형들의 표준점수의 평균과의 차이 값이 ±1.0 이상인 진술문들을 살펴보면 표준점수가 가장 높았던 '좋은 죽음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자신이 한을 남기지 않고 만족하며 죽는 것이다'가 타 유형들의 표준점수의 평균과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긍정적 동의를 보이는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좋은 죽음은 아프지 않고 누구에게 살해당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좋은 죽음은 나이가 다 되어서 남에게 많이 배풀고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라는 진술문이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가 타 유형들의 표준점수의 평균과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부정적 동의를 보이는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사람은 늙으면 죽는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로 나타났다.

<표 10> 죽음인식 제 5유형의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항목 번호	진술항목	표준점수 (Z-score)
17.	좋은 죽음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자신이 한을 남기지 않고 만족하며 죽는 것이다. *	2.08
16.	좋은 죽음은 나이가 다 되어서 남에게 많이 배풀고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	1.56
18.	좋은 죽음은 아프지 않고 누구에게 살해당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	1.27
23.	애완동물이 죽거나 가족이나 친척이 돌아가셨을 때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아팠다.	1.19
4.	죽은 사람도 보고 들을 수 있다.	-1.12
6.	죽은 뒤 오랫동안 무덤에 묻혀있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1.57
5.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도 생각할 수도 없다. *	-1.78

* 타 유형과의 표준점수의 평균과의 차이값 > ±1.0

이 유형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제 5유형의 대표성을 지닌 아동을 중심으로 양극

단의 진술문 선택이유와 아동이 지닌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이 유형에 속한 아동 3명은 모두 남자 아동이었으며,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명이 모두 5학년으로 고학년 남아아동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미 오래 전(3~5년 전)에 부모 또는 조부모의 죽음을 경험한 아동들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이 유형에 속한 아동들의 특성으로는 죽음의 구성요소인 보편성, 비역행성, 비가역성, 인과관계에 대한 요소는 부정하면서도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에 강한 긍정적인 동의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 5유형은 현실형으로 명명하였다.

논 의

아동의 죽음인식

죽음인식의 유형

죽음에 대한 유형은 5가지로써 기능적형, 사후세계형, 종교형, 공포형, 현실형으로 분류하였다

제 1 유형 : 기능적형

죽음인식 제1유형을 기능적형이라고 한 이유는 아동들이 죽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경우가 적고 친척 조부모님의 죽음이나 애완동물의 죽음 등 간접 경험을 통해 죽음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Piaget의 죽음인식 단계를 보면 6~12세 아동들을 구체적 조작기라고 하였으며 이 단계에 있는 아동들을 기능적 단계라고 분류 하였다 이 단계에는 보편성, 비역행성, 인과성을 포함한 죽음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개념을 깨달아 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 유형 아동의 진술문을 보면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긍정적인 죽음인식이 있다. 이것은 보편성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죽었다가도 무덤에 묻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 수 있다는 것에도 부정적인 성향을 보이는 비역행성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종교가 없는 학생과 저학년생들이 대부분이었다.

6~12세 아동들은 생명에 대해 살아있는 것과 죽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며 죽음은 영원히 없어지는 돌이킬 수 없는 생물학적 과정임을 아는 단

계이다 본인의 연구결과도 Piaget 이론과 동일함을 보이고 있다.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도 생각할 수 없으며, 언젠가는 모두 죽는다는 보편성을 인정하였으며 죽은 사람도 보고 들을 수 있다는 질문에 강한 부정을 보이고 있다.

제 2 유형 : 사후 세계형

죽음인식 제2유형으로 종교에 의지하여 죽음불안을 많이 해소하는 유형으로 나타나 사후 세계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죽음은 누구에나 오는 것이며 거역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렵고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게 사실이며 아동에게는 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오승혜(2002)의 아동죽음 개념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탐색한 결과 종교에 미치는 죽음개념 인식을 살펴보면 어떤 집단의 힘보다 종교집단이 죽음에 미치는 힘이 크다고 했으며 사후세계 및 실존의 의미를 밝혀주고 이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고 인간이 찾아야 할 회귀과정이라고 했으며 정은미(1999)에 의하면 기독교는 죄의 결과로 죽음의 필연성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회복되며 부활의 신앙을 본질로 삼는다고 했으며 김남주(1983)는 종교집단이 무종교 집단보다 보편성 개념을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었다. 이때 자신에게 신앙이 있다면 이 세상과 단절이 아니고 하늘 나라에 가서 또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으며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를 가진 아동들의 죽음인식은 훨씬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어 주셨기에 하나님이 불러준 생명 시계가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죽은 사람도 보고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강한 긍정을 보인 부분은 두드러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제 3 유형 : 종교형

죽음인식 제3유형으로 죽음을 맞이한 후의 다음 세계가 있다는 걸 믿는 형이다. 그리하여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 많지 않은 학생 분류였다. 현세에서 착하게 살면 다음 세상은 천국에서 더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렇지 못한 아동들보

다 죽음불안을 훨씬 감소시킬 수 있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정경숙(1995)의 논문에 따르면 TV나 대중매체를 통하여 사람은 다 죽지만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영혼은 살아남는다고 믿는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죽음에 대한 개념획득이 이루어진다는 결과이며 유독 죽음에 대한 비가역성에 있어서만 개념획득의 수준이 증가되지 않아 죽음연구에 혼란을 주는 부분이라고 했다. Koocher(1973)에 의하면 전조작기의 아동은 그들이 갖는 자기중심성 사고의 특성 때문에 상상적이고 상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죽음에 대한 개념도 구체적 개념으로 영혼은 다시 살아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애완동물이 죽거나 가족의 죽음을 경험했을 때 슬프고 마음이 아프다는 강한 긍정이 나왔는데 이런 학생에게 사후세계 즉 천국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죽음 교육을 한다면 남은 가족들에게도 슬픔의 고통을 덜어 주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2유형과 유사한 부분이 보이지만 엄밀히 살펴보면 제2유형은 기독교적 종교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계가족의 죽음을 경험을 통해 사후세계의 내세를 믿는 것이고 제3유형은 기독교를 믿는 아동이 많으며 죽어서도 친구 가족들을 지켜 볼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이 확실하여 죽음 공포와 불안이 적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제 4 유형 : 공포형

죽음인식 제4유형으로써 대부분 고학년 무교, 불교 학생들이 여기에 속했으며 가장 부정하는 진술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내세를 믿지 않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많이 느끼는 분류였다. Lonetto(1980)는 죽음은 아동에게 거세공포나 무기력을 가져올 수 있으며 혹은 어두움이나 질식에 의해 격을 수 있는 위협에 대한 두려움으로 상징화되어 언급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한 아동보다 암과 질병을 겪거나 겪고 있는 아동은 훨씬 더 죽음에 대한 정서적 불안을 느낀다고(Goodman 1990)는 말하고 있으며 정경숙(1998)은 아동은 부모의 죽음에 직면했을 때 사별에 대한 걱정은 또 다른 양육에 대한 불안감과 부모님의 죽음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등으로 대인관계에서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죽음은 혼자 가야할 길 이므로 아동에게 공포감이 물려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아동들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괴리감을 느낄 수 있다. 누구든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삶의 일부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삶이 내일의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한다. 죽음도 한 개인의 일생일대기 마지막 과정이므로 우리는 좋은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그러나 죽음공포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땐 얼마나 불행한 죽음이 될까?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줄일 수 있는 죽음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요즈음 청소년 및 성인들의 자살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아동기 때 공포, 두려움으로 잘못 형성된 죽음인식이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자살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죽음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제 5 유형 : 현실형

제5유형으로 좋은 죽음은 한을 남기지 않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만족하며 죽는 죽이라고 아동들은 말했다. Furman(1974)은 추상적이거나 죽음개념에 대하여 알고 있는 아동일수록 죽음에 대해 잘 적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듯이 죽음에 관한 몇 마디라도 들어본 아동들이 보다 쉽게 죽음을 인정하고 슬픔에서 빨리 벗어나 실제생활에 적응한다고 보았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과 직결되므로 잘 사는 사람이 잘 죽을 수 있고 잘 죽을 수 있으려면 잘 살아야 한다. 이제부터 죽음을 터부시하지 않고 가진 것 남에게 많이 베풀고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준비도 필요하다.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선 계획적인 삶을 살아야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며 유서도 미리 작성해 두는 것도 남은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일이다. (Santrock 1995)에 따르면 아동들에게 죽음준비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올바르게 건강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보듯이 공포형 아동들에게는 자연적인 죽음을 성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죽음 준비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과 같이 5가지 유형을 살펴보면서 학령기 아동

의 죽음인식은 다양한 구조에 대해 이해를 하는 편이었고 가족이나 친지 또는 애완동물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고통을 인식하게 되고 종교가 있는 아동이 훨씬 죽음공포가 덜 함을 알 수 있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죽음공포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어른들은 죽음 개념을 솔직하게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죽음은 불가피한 것이며, 죽음은 불가역적인 것이며, 죽었다는 것은 모든 삶이 정지되었다는 점을 아동들에게 교육시켜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학령기 아동의 건전한 죽음인식이 아동들에게 교육이 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자살율도 감소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 죽음교육이 요망된다.

결론 및 제언

결론

아동들의 죽음이란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인지적 능력의 성장 발달 정도에 따라 제한되어 있으며 간접적 경험을 통해 죽음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갖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에게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부모들이나 성인들은 꺼려하는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아동에게 죽음자체를 자신의 것이 아닌 별개의 것으로 여기고 죽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어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나 가족 및 친구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 죄책감 또는 공포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할 우려가 있다. 또한 아동기에 잘못된 형성된 죽음인식은 성인기까지 그대로 지속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과 같이 아동기부터 죽음준비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며 이에 앞서서 아동이 인지하는 죽음 인식에 대한 탐색과 규명이 필요하며 아동기의 특성상 성장 발달 단계적인 특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죽음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통하여 그들의 죽음인식에 대한 주관적 구조와 유형을 탐색하여 학령기 아동에게 죽음인식을 이

해하는데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데 기여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학령기 아동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2학년~6학년 아동 31명을 대상으로 죽음인식에 대한 주관적 구조와 유형별 특성을 탐색하고자 인간의 주관성 연구에 적합한 Q-방법론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학령기 아동의 죽음인식에 대한 유형은 5가지로 구성됨을 발견하였다. 이들 유형은 대체로 서로 독립적인 양상을 띠고 각각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각 유형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아동의 죽음인식 제 1 유형은 기능적형으로 죽음의 구성요소인 보편성, 비가능성, 비가역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두드러진 유형이었다.

아동의 죽음인식 제 2 유형은 사후세계형으로 기독교의 종교적 배경을 가진 아동들로, 사후세계에 대하여 강한 내세 중심의 죽음인식이 두드러진 유형이었다. 아동의 죽음인식 제 3 유형은 종교형으로 죽어서도 가족과 친구들을 지켜볼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사후세계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이 확실한 유형이었다. 아동의 죽음인식 제 4 유형은 공포형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타 유형에 비하여 강한 유형이었다. 아동의 죽음인식 제 5 유형은 현실형으로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에 강한 긍정적인 동의를 보이는 유형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아동의 죽음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문헌과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죽음의 구성요소를 이해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외에도 아동들이 생각하는 죽음인식의 주관적 구조를 살펴본 결과 죽음의 정의, 사후세계에 대한 인식,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들도 있어 죽음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인식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5개의 유형별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성별, 연령수준, 종교적 배경, 주변에서 일어난 죽음 경험 유무에 따라 죽음인식의 주관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영향요소 중 가장 괄목할 만한 것은 종교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종교적인 신념의 유무에 따라 죽음에 대한 수용과 공포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1) 학령기 아동의 죽음인식의 다양한 측면을 사정하기 위한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른 학령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을 통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2) 학령기 아동에게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약화시켜줄 수 있는 죽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대상 아동의 성별, 연령적, 종교적 특성과 주관적 인식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학령기 아동뿐만 아니라 유아기, 학령전기, 청소년기 아동의 죽음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통하여 성장 발달단계에 따른 죽음인식의 구조와 유형을 탐색하여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요약

목적: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죽음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통하여 그들의 죽음인식에 대한 주관적 구조와 유형을 탐색하여 학령기 아동에게 죽음인식을 이해하며 효과적인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방법: 학령기 아동의 죽음인식에 관한 주관적인 구조와 유형을 탐색할 수 있는 Q방법론을 사용하였다. Q-모집단은 학령기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중립적 면담과 개방형 질문지를 이용하고 문헌연구를 통하여 총 132개의 진술문을 수집하였으며, Q표본은 비 구조화된 방법을 통해 23개의 진술문(Q-표본)을 도출하였다, P표본은 학령기 아동 31명(8세~13세)이었으며 Q카드를 이용하여 Q-분류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PC QUAN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학령기 아동의 죽음인식 유형은 5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제 1 유형은 기능적형으로 죽음의 구성요소

인 비역행성, 보편성, 비가능성, 인과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두드러진 유형이었다. 제 2 유형은 사후세계형으로 기독교의 종교적 배경을 가진 아동들과 직계가족의 죽음을 경험했으며 사후세계에 대하여 강한 내세 중심의 죽음인식이 두드러진 유형이었다. 제 3 유형은 종교형으로 죽어서도 가족과 친구들을 지켜볼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사후세계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이 확실한 유형이었다. 제 4 유형은 공포형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타 유형에 비하여 강한 유형이었다. 제 5 유형은 현실형으로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에 강한 긍정적인 동의를 보이는 유형이었다. **결론:** 본 연구결과가 주는 간호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간호실무면에서 학령기 아동의 죽음인식의 주관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문헌이나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죽음의 구성요소에 대한 이해의 차원에서 좀 더 확대되어 학령기 아동이 인지하는 죽음의 정의, 사후세계, 좋은 죽음에 대한 인지수준을 이해하고 유형별 특성에 따라 학령기 아동들의 효과적인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사용하여,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죽음 경시풍조 및 만연된 자살을 예방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는 역할을 담당 할 것이다. 간호이론 면에서 학령기 아동의 죽음인식의 주관적 구조와 유형별 특성을 규명하고 탐색함으로써 학령기 아동의 죽음인식 모델 구축과 나아가 생명존중의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간호연구 면에서 학령기 아동에게 유형별로 긍정적인 죽음인식과 더 나아가 생명 존중의 측면에서 심리사회적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도구의 개발과 간호중재 전략의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권성자(1988) : 아동들의 죽음에 대한 이해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남주(1983) : 아동의 죽음개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병선, 이윤옥(1997), 아동연구방법, 정연. 암환아의 스트레스와 대응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 김상희(1986) : 죽음에 대한 어린이의 이해도 및 부모와 교사의 의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양남(1992) : 아동의 죽음개념 발달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희경(2002) : 현대 한국인의 죽음에 관한 인식과 태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남은영, 장연집(1998) : 아동의 죽음불안 감소를 위한 죽음대비 교육효과,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승혜(2001) : 초등학교 아동의 죽음개념과 죽음불안,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희(1988) : 아동의 인지발달에 따른 죽음의 이해도,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준숙(1992) : 아동의 죽음하위 개념 발달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경숙(1985) : 아동의 죽음에 대한 개념과 인지적 발달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경숙(1998) : 발달수준에 따른 아동의 죽음에 대한 개념과 죽음준비교육에 관한 연구, 대구산업정보대학 논문집 제12호
- 정운길(2000) : 죽음개념, 김현민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에서 재인용
- 정은미(1999) : 종교와 죽음 경험 유무에 따른 유아의 죽음개념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연, 조결자(1998) : 암 환자의 스트레스와 대응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경희대학교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
- Anthony(1940) : The child's discovery, New york : Harcourt, Brace(1972) & Word, out of Print New edition is titled the Discovery of Death in childhood and after
- Anthony(1972) : The discovery of death in childhood and after. New York : Basic Books
- Ann Armstrong -Daily, Sarah Zarbock(2001) :문영임, 황애란, 최화숙, 박호란, 문도호, 김신정, 강경아 (2004) : Hospice care for Children pp 3~6
- Autton(1996) : 김현민(2001) 노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p6 재인용
- Bemstein(1973) : Helping young children cope with death current Topic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1
- Beauchamp, N . W : The young children Perceptions of Death(Doctoral Dissertation, purdue University. 1974)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5, 3288A-3289A
- Essa & Murray(1994) :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and experience with death,young children. 5, 74 - 81
- Feldman(1989) : 오승혜(2001) 초등학교 아동의 죽음개념과 죽음불안 논문 재인용 p23
- Furman(1974) : Child's parent dies : Studies in childhood beravement New heaven, connecticut : Yale University press
- Goodman(1990) : Development the Concept of Death in children the cognitive and Affective Components Adelphi University the institute Advanced psychological studies Degree PH.D 1989
- Kastembaum(1977) :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death,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 225~
- Kras now(1992) : The impact of experience on children's conception of death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3, 4976B
- Koocher(1973) : Childhood, Death, and cognitive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9 pp 369- 375
- Lening D. Dickison(1994) : Understanding dying death and bereavement 3rd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 Haurer(1996) : Maturation of Concepts of death, British Journal of Medicine and psychology 39, pp 35~41
- Melear(1973) : children's concepting of death,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973, 3 - 27
- Mills etat(1976) : Discussing death : A Guide to death education. homwood. IL : ETC publications
- Nagy(1948) : the child's view of Death,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948 73. 327 Reprinted in H Feifer the meaning of death New York : McGraw Hill 1059 pp 79 - 98

- Pennells D. Dmith(1995) : the forgotten monrers, London : Jessica Kingsley pub
- Piaget(1960) : the child's conception of the world patterson. N. J. Little field Adams
- Sanfeliz, (1994) : Explori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deat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rvard
- Ragouzeos(1987), B(1987) The Grieving student in the classroom, Lancaster, PA : hospice of Lancaster county
- Rochin, G. (1967) : How younger children view death and themselves in E . A Grollman (Ed), Explaining Death t o children Boston : beacon press
- Schmitz : Helping children Understand and Cope, New York : Peter lang publishing 1987
- Schilder. P. & wechsler D : The attitudes of children toward Death,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934. 45 pp 406 - 451
- Segal(1984) : 오승혜(2001) 초등학교 아동의 죽음개념과 죽음불안 논문 재인용
- Speece & Brent(1996) : Childrren's Understanding of death : A review of three components of a death concept, child Development 55 1671-16
- Sontrock(1995) : 정경숙 (1997) 발달 수준에 따른 아동죽음에 대한 개념과 죽음 준비교육에 관한 연구 대구산업정보대학 논문집 제12호 (1998.6 월) 재인용
- Stemlicht(1980) : The concept of Death in preoperational Retarded children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37
- Vernon(1970) : the sociology of death, New York : the Ronald press 44, 395 - 407
- Walsh. H. (1984) : The young child to the social work New york macmillin pup